



한·베트남 FTA 발효 3년차

한·ASEAN FTA와 함께 베트남 시장 확대에 기여



한·베트남 FTA 발효 3년차 보고서

한·ASEAN FT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자 아시아 신흥 경제성장국과 맺은 양자무역협정 한·베트남 FTA의 2016년 성과를 되짚어본다. >> p12

세계적인 협상가를 꿈꾸는 두 청년

2016 FTA 활용 우수사례 학생부분 대상, 충남대 무역학과 학생들이 가상으로 세운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 사업기 >> p24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소고(小考)

대중국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무역과 경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p28

tv.naver.com/fta1380



무역왕의 비밀코드 1380

이상민 김종민 장동민 박휘순 전지윤 예정화


제작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왕의 비밀코드 1380

검색창에 '무역왕의 비밀코드 1380'

총괄 전응길 후원주 기획 권홍 이종령 제작 이석주 극본 오주영 연출 노승호 양환용 제작부장 한진수 제작부 송은지 정하얀 연출부 황가영 이진용 김대용 구성 남아라 김현희 이성희
촬영 최정면 촬영팀 콘미디어 조명 문성중 조명팀 올라이프 포스트프로덕션 유니크프로덕션 믹싱&음악 더플레이 스틸촬영 강선준 조은진 포스터디자인 미상스튜디오 시각효과 레드비픽처스

기획  kimac

제작  V.A.N.I.L.A. PRODUCTION KPC⁺communication

제작협찬  한국무역협회

너무 가깝고, 너무 많고, 너무 느리니까

-한·중 FTA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 전면 시행

p7 이슈포커스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이하 CO-PASS)'를 통해 한·중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PASS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국 중 최초로 시행되는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으로, 그 시행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THIS IS VIETNAM” 베트남 인력들은 껌 씹으면서 계단 못 오른다?

p16 커버스토리 소비재 시장 진출이나 제조 공장 이전을 위해 베트남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트남 주재관인 필자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베트남입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식으로 이해해야만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가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이겠죠.

“전 세계가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으로만 업무를 국한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세계 어딜 가든 통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무역이 세계 주는 큰 매력이자 도전거리인 것 같아요.”

p24 MEET 2016 FTA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생 부분 대상을 수상한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전성현, 강경준 학생을 만나 비즈니스 모델 수상 사례와 무역의 매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한한령(限韓令)’이란 중국이 한류 콘텐츠 등에 대해 자국 내 활동을 제재하는 방침

p28 FTA PRACTICE 최근 몇 달간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양적,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과 재작년, 대중 수출 감소를 경험한 우리로써는 올해 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 마련 고심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Contents

February 2017 vol.57



표지 사진은 베트남의 현대와 전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진 가운데 높은 건물은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비텍스코 파이낸셜 타워 (Bitexco Financial Tower)로 베트남 현대화의 상징이며, 그 앞의 동상은 외세 침입을 막아선 '응우옌 환'이라는 15세기 베트남 장군이다.

FTA BRIEFING

- 01 이달의 FTA 브리핑

ISSUE FOCUS

- 04 카드뉴스: 베를린장벽보다 높다는 바로 그 장벽
- 06 Global FTA News
- 08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 전면 시행

FTA MAP

- 10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COVER STORY

한-베트남 FTA가 2017년 발효 3년차에 접어들었다.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며 좋은 시작을 알렸던 한-베트남 FTA, FTA 관세 효과가 시작된 지난 2016년 대베트남 교역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3년차 한-베트남 FTA를 정리하며, 아시아 신흥 글로벌 시장 베트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6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7년 2월 1일(통권 57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ER STORY

한·베트남 FTA 발효 3년차

- 12 한·베트남 FTA 발효 3년차 보고서
- 14 국제통상체제에서의 베트남과 FTA 정책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16 베트남 방식으로 베트남을 이해하자
문병철(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상무관)

FTA & LIFE: 베트남

- 18 다채로운 삶의 무늬를 지닌 나라
- 20 직접 꾸미는 인테리어와 한국산 조미김 열풍

FTA WIKI

- 22 FTA 용어사전:
① 비관세장벽을 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관세 용어

MEET

- 24 2016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생부분 대상 수상자 충남대학교 전성현, 강경준
- 26 농어업인 FTA 우수사례: ① 경기 안성시 고바우농장

FTA PRACTICE

- 28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소고(小考)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30 중국 비관세장벽 뛰어넘기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 32 중국 IP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 34 FTA 초보자를 위한 기초 활용 노하우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 36 우리나라의 FTA History: ① 한·칠레 FTA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FTA NEWS

- 38 한중일 FTA 11차 공식협상 개최

BOARD

- 40 FTA 행사 및 해외 전시 일정 정보 & 독자 알림

베를린장벽보다 높다는 바로 그 장벽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무역 만리장성,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이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관련 규제**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에 유행처럼 퍼진 요즘에는
만리장성 넘기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 전, 중국 정부가 전가배터리 생산인증 기준을
갑자기 40배나 높여 국내 기업을 배제했었고,
또 위생검역 강화로 식품과 화장품 통관 불합격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비관세장벽**은
‘중국 마음대로’라는 점입니다.
제도나 규칙을 아무 때나 바꾸고,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각국에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 of the —
기업과 정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F.T
New York, New York



한국 타깃으로 한 비관세조치 건수

65건 → 134건

2008년 7월~2012년 6월

2012년 7월~2016년 6월

최근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조치가 과거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아졌고,
지난해 **총 49건**의 비관세장벽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건이 중국**이었습니다.

왜 Why 그러는 걸까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무역 보복성 조치로 보이는
중국발 규제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 및 세계 시장의 진입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무역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역 만리장성을 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현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Japan-EU]

일·EU 체결 시, 새로운 거대 경제권 출현



일·EU 양국 간 경제적 관계

일·EU EPA가 체결될 경우 2015년 기준 세계 인구의 8.6%, GDP의 27.8%, 교역의 35.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할 전망이다. 2015년 기준, 일본의 대EU 수출은 8조 엔(전체 수출의 10.5% 차지), 수입은 8조 6,000억 엔(전체 수입의 11% 차지)으로 EU는 일본에게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 대상이다. 일본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대EU 수출의 15.5% 차지), 철강 등 원료별 제품(7.4%), 자동차 부품(5.3%) 등이다. 반면, 일본의 대EU 수입품목은 의약품(대EU 수입의 19.9% 차지), 자동차(10.4%), 유기 화합물(5.6%) 등이다.

양측 합의 위해 서두르는 중

6월 브렉시트에 이어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TPP 이탈을 선언하고, 미·EU FTA도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본과 EU 양국은 자유무역 협정 연내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가 내년에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합의가 늦어질 경우 표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측은 합의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TPP 발효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신성장 전략의 중요 기동으로 내세웠던 메가 FTA 등 경제협력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EU와의 EPA 체결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번 협상이 체결될 경우, EU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및 전자기기의 경쟁력 개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간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광범위한 FTA 체결로 한국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으며, 한·EU EPA 등 메가 FTA 체결을 독촉해 왔다. EU의 경우, 자동차 관세율이 10%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시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EU FTA 체결 시, 한·EU FTA로 관세 혜택을 받던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교섭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EU가 지난 12월 도쿄에서 EPA 수석협상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다음 주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말름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각료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베 수상과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지난 5월 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 연내 대략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과 EU는 2013년 4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지난 12월 개최된 협상은 18번째 협상이다. 특히 내년에는 4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의회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양측은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말름스트롬 EU 집행위원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혹은 내년 초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France]

2017년부터 프랑스에서 달라지는 것들

그린피스를 위해 앞장서다

먼저, 비닐(플라스틱) 봉투 규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금지됐던 슈퍼마켓 등 지에서의 1회용 얇은 비닐봉투 사용이 올 1월부터는 과일 및 야채 범위까지 확대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정육점이나 야채가게 등에서 상인들은 얇은 비닐봉투를 제외한 종이, 천, 바이오 소재, 재활용 가능한 봉투들만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품의 원산지 표기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1월 1일부터 고기나 우유를 기본 재료로 해서 만든 가공식품 및 유제품(냉동 피자, 커플렛, 라자냐 및 요거트, 치즈 등)의 경우, 사용된 고기와 우유의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몇 년 전 큰 문제가 됐던 말고기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원산지 기재 요구가 쇄도, 정부에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의 경우 고기가 최소 8% 이상이 들어간 경우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납품하는 대형 유통망을 비롯한 유통업자, 생산 및 가공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며, 이 조치는 프랑스 내 2,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광고에 대해 '유티브 세' 신설

우표, 고속도로 통행료, 가스요금 등이 인상된다. 우표가 유형에 따라 70센트(약 900원)에서 85센트(약 1050원)가량 인상되었으며 프랑스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국 평균 0.76% 인상되었다. 가장 많이 오른 곳(1.2%)은 A89번 도로로 보르도와 리옹을 잇는 고속도로이며, 가장 적게 오른 곳(0.57%)은 프랑스 중서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다. 한편 가

스요금 관련, 프랑스 내 약 6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엔지(Engie, 구 GDF 수에즈)사가 원자재가 인상 및 관련 세금 적용에 따라 요금을 5% 이상 인상했다. 또 기업 광고에 대한 '유티브 세'를 신설했다. 기업 광고 관련, 새롭게 징수하는 세금에는 이른바 '유티브 세'로 불리는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 광고에 대한 세금도 포함된다. 금융 거래세(토빈세)의 경우는 0.2~0.3% 인상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영세한 일부 기업(연매출 7,000만 유로, 순이익 7만 5,000유로 미만)에 한해 법인세 비율이 33.33%에서 28%로 경감되고, 설립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해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프랑스뿐만 아니라 외국계 모든 그룹의 배당금에서 3%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선택 금지, 합의이혼 법원 없이 가능

차량 앞 유리창 등을 어둡게 하는 선티미 도로 안전을 이유로 금지된다. 차량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35유로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을 감점한다. 또한, 법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경우, 실 운전자에 대한 벌점 부과를 위해 당국에 운전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사측에서는 실 운전자를 추적해 45일 이내에 운전자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합의이혼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다. 상호 합의이혼의 경우, 더 이상 법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변호사와 공증인을 통해 등록된 이혼 합의사항이라면 충분하다. 이는 매년 합의이혼으로 6만 건의 이혼을 담당해야 하는 법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9.67유로였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부터는 9.76유로로 0.93% 인상됨에 따라, 한 달에 세전 기준으로 1,480.27유로를, 세후로는 1,153유로로, 월 11유로를 더 받게 된다.☺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 전면 시행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 가능

지난 12월 28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이하 CO-PASS)'을 통해 한·중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O-PASS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국 중 최초로 시행되는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으로 앞으로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확대에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PASS:

협정상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앞으로 관세청이 추진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 사업」
전체로 통합·브랜드화 하여
CO-PASS로 지칭, 활용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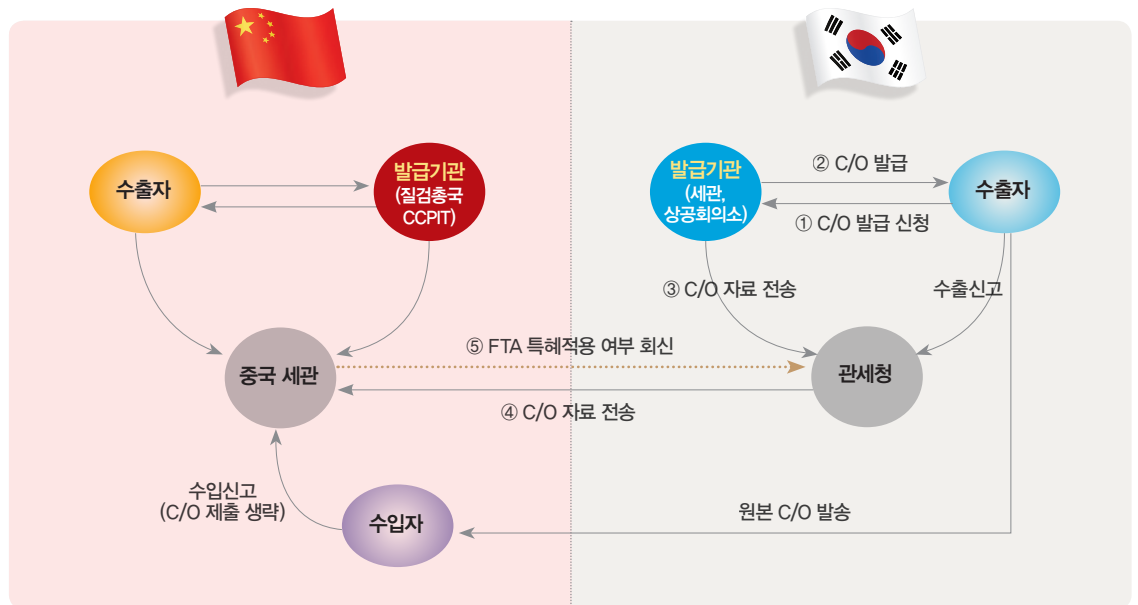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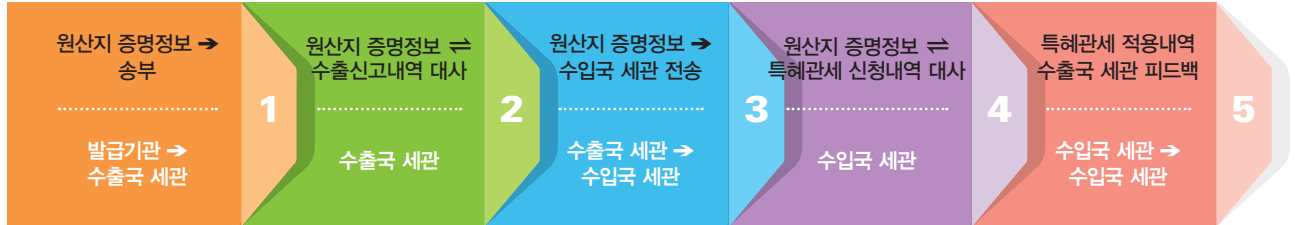
CO-PASS, 한·중 FTA에 왜 필요한가?

관세청 황태훈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은 한국과 중국 간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연관지어 CO-PASS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먼저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가 화물로 도착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 반해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그 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상황이었다. 둘째로, 한국과 중국의 총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24.6%를 차지한다. 그만큼 FTA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필요한 세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통관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 느린 업무 처리 관습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현재 세수 감소를 우려해 FTA를 포함한 모든 감면권에 대해 100% 서류 심사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다.

CO-PASS, 한·중 FTA 활용에 어떤 도움이 될까?

첫째,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생략에 따른 중국 내 물류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짧은 화물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1~2일 기다렸다가 수입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낭비된 창고료 등 물류비가 연간 6,2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CO-PASS는 이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C/O 제출 의무는 없어지더라도 자료 보관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C/O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둘째, 원산지 심사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 세관은 위조 C/O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해 협정신청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했다. CO-PASS가 전면 시행되면 C/O의 정확성 여부를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통관심사과정에서 원산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다. 셋째, 원산지 검증이 줄어들 것이다. 올해 중국 세관이 우리측에 요청한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C/O의 인장과 서명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는 CO-PASS를 통해 전자 데이터로 심사하기 때문에 C/O 형식 관련 검증 요청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 자료 교환 어떻게 이루어질까?



CO-PASS 업무 프로세스는 한국과 중국 모두 유사하나 C/O 발급 순서가 조금 다르다. 한국은 수출신고 후 C/O를 발급받는 반면, 중국은 C/O를 발급받은 후에 수출신고를 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를 들어보자. 수출자가 발급기관에 C/O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은 수출자에게 C/O를 발급한다. 발급기관은 C/O 발급정보를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관세청은 C/O 자료와 일부 수출항목을 병합하여 중국 해관으로 전송한다. 해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면 관련 C/O에 FTA 특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거부되었다면 그 사유가 무

엇인지 관세청으로 피드백 한다. CO-PASS를 통해 교환되는 자료는 총 38개 항목으로 크게 위 프로세스의 'C/O 자료 전송'에 해당하는 자료와 'FTA 특혜적용 여부 회신'에 해당하는 자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④번 자료는 발급된 C/O 내역 중 서명, 인장, 화인(貨印) 등 이미지 데이터를 제외한 23가지 항목과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번호, 일자 등 5개 항목을 합쳐 모두 28개 항목이다. ⑤번 자료는 협정관세 적용여부와 거부사유 등 실시간으로 피드백 하는 항목 6개와 월별로 피드백하는 4개 항목을 합쳐 10개 항목이다.㉞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FTA 현황



발효국가

① 한·칠레 FTA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② 한·싱가포르 FTA

ASEAN 시장 교두보

③ 한·EFTA FTA

유럽시장 교두보
*EFTA(서유럽 경제 연합체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④ 한·ASEAN FTA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⑤ 한·인도 FTA

BRICS국가 거대시장

⑥ 한·EU FTA

세계 최대 경제권
(GDP 기준)
*EU(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⑦ 한·페루 FTA

중남미 진출 교두보

⑧ 한·미국 FTA

거대 선진 경제권

⑨ 한·터키 FTA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⑩ 한·호주 FTA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⑪ 한·캐나다 FTA

북미 선진시장

⑫ 한·중국 FTA

우리의 제1위 교역
상대국 (2015년 기준)

⑬ 한·뉴질랜드 FTA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⑭ 한·베트남 FTA

우리의 제3위
투자상대국

⑮ 한·콜롬비아 FTA

중남미 신흥시장

서명/타결 국가

① 한·중미 FTA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SICA(중미통합체제 국가 중 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협상 중 국가

① 한중일 FTA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② 한·RCEP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③ 한·에콰도르 SECA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④ 한·이스라엘 FTA

창조경제 모델국

재개, 개시, 여건조성 국가

① 한·멕시코 FTA

북중미 시장 교두보

② 한·EAEU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③ 한·GCC FTA

자원부국, 기업 선호도 1위
(2015년 기준)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④ 한·MERCOSUR FTA

남미 최대시장
*MERCOSUR(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KOREA-VIETNAM FTA 발효 3년차

한-베트남 FTA 3년차 보고서
국제통상체제에서의 베트남과 FTA 정책
베트남 방식으로 베트남 이해하기

KOREA-VIETNAM FTA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지난 2016년 베트남 무역량을 살펴보면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10% 이상 차이를 내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6년 6월 서울에서 열린 '한·베트남 FTA 활용촉진 업무협약 체결식'.



한·베트남 FTA 발효 3년차 보고서

한·아세안 FTA 보완하며 베트남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

한·베트남 FTA가 2017년 발효 3년차에 접어들었다.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며 좋은 시작을 알렸던 한·베트남 FTA, FTA 관세 효과가 시작된 지난 2016년 대베트남 교역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를 업그레이드하다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5~6%의 경제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자 수요의 큰 증가가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이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베트남 FTA는 신흥 거대 글로벌 시장과의 양자협상이자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협정이었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일·베 EPA가 체결되어 그동안 우리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본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 조건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에 한·아세안 FTA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민감·초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를 달성했고,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위생검역(SPS)과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의 강화 규정 및 전자장거래 챕터를 신설하는 등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바 있다.¹⁾

¹⁾ 한국,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수입액 기준 각각 91.7%, 86.3%의 자유화를 달성했는데, 한·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 각각 97.7%(+3%p), 92.4%(+6.1%p) 추가자유화를 달성했다.

History of Korea-Vietnam FTA

- 2015. 12 한·베트남 FTA 발효
- 2015. 5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 2014. 12 FTA 협상 타결 선언
- 2012. 9~2014. 12 FTA 제1차~9차 협상
- 2012. 8 한·베트남 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
- 2011. 10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6차 회의(다낭)
- 2010. 6 한·베트남 FTA 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서울)
- 2009. 10 FTA 공동작업반 설치 합의

✦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살펴보기 ✦

● 원산지규정 생산과정과 교역 패턴을 고려해 품목별 원산지규정 개선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 2012년 기준 HS 6단위 5,205개 품목에 대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변형을 볼 수 있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원산지로 인정한다.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았으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수출 당사국에서 원산지 재표로만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한다. 또한 한·아세안 FTA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양국의 생산과정과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하였다.

● 서비스, 투자 관련 조항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했는데 특히 건설 관련 분야에서 베트남으로부터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를 확보했다. 상대국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등성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기 위해 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며 출자금, 이윤, 자본이득, 배당,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했다.

● 위생조치, 무역기술장벽, 지적재산권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WTO 위생검역 협정을 근간으로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양국의 SPS 조치 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의 기술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건자재, 화장품, 의약품 등 분야에서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전자상거래 최초로 만든 전자상거래 챕터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구성하여, 전자 서명, 종이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료 <한·베트남 FTA 1주년 성과분석 및 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kotra

한국의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순위	2014		2015		2016(01~10)			점유율 변화 (B-A)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A)	금액	증가율	점유율(B)	
전세계		1,478	100	1,656	100	1,407	2.2	100	
중국	1	437	29.6	495	29.9	402	-1.4	28.6	-1.3
한국	2	218	14.7	276	16.7	260	11.8	18.5	1.8
일본	3	129	8.7	144	8.7	122	1.5	8.7	0.02
대만	4	111	7.5	110	6.6	92	0.3	6.6	-0.07
태국	5	71	4.8	83	5	69	3.2	4.9	-0.07

단위 억 달러, %, %p 자료 베트남 관세청

한·베트남 FTA 발효 후 대베트남 수출 성과,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훌륭한 성적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2016년 1~10월까지의 대베트남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수입실적 역시 10%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한국 수출교역국의 베트남 위상 변화를 보면 2011년 8위였던 것에서 2016년 4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상위 10개 수입국을 보면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는데 수입액 증가율은 상위 5개 수입국 가운데 11.8%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1위국인 중국 수입액 증가율이 2015년 13.2%에서 2016년(10월까지 누적)에는 -1.4%를 기록해 상위 수입국의 저조한 성적 속에 올린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해 10% 이상 차이를 내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섬유, 전자기기, 플라스틱제품 등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자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 부분에서는 의류, 전자제품, 식품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율을 나타냈다(출처 한국무역협회).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재 수출이 14.2% 증가했는데 베트남 내수시장 확대와 한류 그리고 한·베트남 FTA 관세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TA 발효 이후에도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기계류, 화물자동차는 베트남 산업생산 부진에 따른 자본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량이 줄어들었다.●

KOREA-VIETNAM FTA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역사적 갈등, 대립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럽 등과 FTA를 성공적으로 발효시킨 한 베트남의 결단력과 역량은 가히 주목할 만하다.



적극적인 FTA 정책 통한 네트워크와 결단력 주목해야

베트남은 통상국가다.

2014년 베트남 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161%, 2015년 무역규모는 3,277억 달러에 달한다.

양국 간 경제수준과 국가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비교는 물론 어렵겠지만 2016년 한국의 대외무역의존도가 90%선을 웃돌고 11월까지의 무역규모가 8,167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떠올리면 가히 괄목할 만한 수치다.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라는 특수 체제인 베트남의 이러한 배경엔 과감한 개혁개방과 그 일환으로써의 FTA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국제통상체제로의 편승

오늘날의 베트남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하나로 인식되지만 과거 G2국가(미국: 1964~75년, 중국: 1979년) 모두와 전쟁을 겪고 그로부터 자국방위에 성공했던 강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에 앞서 1954년에는 베트남의 재(再)식민지화를 갈망했던 프랑스를 영토에서 몰아내기도 했다. 마치 우리의 현재를 보는 것과 같이 남북 간 이념갈등으로 나뉘어 있던 베트남은 결국 사회주의 북 베트남의 주도로 통일되었지만 1986년 개혁과 개방, 그리고 경제 쇄신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도이모이 정책'을 표방한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이어 1987년 외국인투자법, 1995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입, 199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으로 2000년대 초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성공했다. 그리고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국제통상체제에 정식 편승하였으며 통상국가로서 지금의 위치에 도달할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의 FTA 현황과 정책

앞서 언급한 도이모이 정책과 ASEAN가입 등을 통해 개방경제와 자유무역의 효과를 실감한 베트남은 FTA에도 꽤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베트남이 ASEAN의 회원국 자격으로, 그리고 동시에 독립국가 자격으로 투-트랙 FTA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분	타결 혹은 발효 FTA(가나다 순)
ASEAN 자격	인도,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및 뉴질랜드
베트남 단독	ASEAN, EEU, EU, TPP, 일본, 칠레, 한국

1995년 ASEAN 가입 이후, 매력적인 거대 시장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한 베트남은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이러한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한중일, 호주 및 뉴질랜드, 인도와 FTA를 타결, 발효시켰다. ASEAN의 자격으로 보다 분산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국제무대에서 착실히 경험을 쌓아가며 우선 지리적으로 공감대가 큰 아시아 국가들과 FTA 협상을 펼친 것이 돋보인다.

이렇게 이른바 FTA 맷집을 키워온 베트남은 독자적 FTA 정책에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기존에 ASEAN으로써 타결, 발효시킨 FTA 중에 양자적으로 교역 관계의 중요성과 이해관계가 더 큰 국가들과는 적극적인 양자 FTA 협상에 돌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일본, 베트남·한국 FTA가 각각 2009년과 2015년 발효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 약 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도 했던 베트남

이 경제적 독실에 보다 근거해 일본과 두 차례 FTA를 타결, 발효시킨 부분은 관심을 모은다.

이후 베트남의 독자적 FTA 정책은 ASEAN 차원에서의 FTA 정책과 대조될 정도로 지역적 확대를 지향하게 되고, 베트남·칠레 FTA, 베트남·EU FTA, 베트남·EEU FTA를 통해 남미와 유럽지역까지 그 통상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고 작년 정식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로 화룡점정(畫龍點睛)했다. 특히 중국의 G2성장, 이 과정에서 비롯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2의 중국'으로 각광받게 된 베트남은 TPP 정식 참여국으로써 단숨에 지역 내 주요 통상국가 자리에 도전할 수 있을 존재로 성장했으며, 향후 TPP가 발효되게 되면 이러한 가능성과 입지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선진화된 FTA 네트워크에 힘입어 막대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타결 이전이긴 하지만 베트남의 적극적인 FTA 정책 행보는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 중이며,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양자 FTA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현재까지 타결 혹은 발효시킨 FTA와는 별도로 EU, 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가나다 순)와는 FTA 수준만큼 포괄적이진 않지만 투자나 통상협력 등을 위한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시켜 놓은 상태다. 이러한 FTA 정책에 힘입어서인지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FTA 무대에 등장한 2005년 이후 명목상 GDP를 바탕으로 본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높아져 2010년 이후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여타 신흥국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성과다.

베트남의 FTA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도 베트남도 개방경제, 대외무역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록 베트남의 FTA 경험과 무역규모, 통상국가로서의 입지 등은 아직 한국의 그것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자명하다. 그러나 베트남이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강력한 개혁과 쇄신을 과감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역사적 갈등, 대립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유럽 등과 FTA를 성공적으로 발효시킨 뒤 TPP 참여까지 가능케 한 결단력과 역량은 가히 주목할 만하다. ●

KOREA-VIETNAM FTA

글 문병철(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상무관)

사진 한국경제신문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서 과히 친족의 나라, 사돈의 나라라고 불릴만하게 되었다.



베트남 방식으로 베트남을 이해하자

최근 들어 소비재 시장 진출이나
제조 공장 이전을 위해 베트남을 찾는
사람이 많다.
필자는 베트남을 찾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당부한다.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베트남입니다(TIV: This is Vietnam).”
베트남의 문화와 상거래 방식을
확실히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한국 방식이 아닌 ‘베트남 방식’으로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베트남 전쟁, 길거리 오토바이, 아오자이 그러나...

흔히들 베트남하면 베트남 전쟁, 길거리의 오토바이, 하얀 아오자이와 갓 모자를
쓴 여성 등을 떠올린다. 물론 베트남에는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고,
학생들이 하얀 아오자이 교복을 입고 다닌다. 국민소득 2,000달러의 저소득 국가
로 길거리에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오토바이가 많다. 인구 1억 명에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3천 5백만 대이니 성인이면 누구나 오토바이 한 대쯤은 보유하고 있다
고 보면 맞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면서 베트남은 많은 부분 변화를 겪고
있다. 1975년 전쟁이 끝나고 통일된 베트남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 높은 인플레이
이션과 실업에 시달리다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시장경제를 접목한 1980
년 도이모이(쇄신) 정책 추진과 함께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경
제발전이 우리나라보다 20년 남짓 뒤진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왔다. 그 결과, 지금은 경제 양극화 등 많은 부작용
도 있지만 ‘차세대 중국’, ‘세계 제조 공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게 되었고, 삼성전자
를 포함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하여 외국기업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내 곳곳에 벤츠 등 고급차가 즐비하고 대형 비
즈니스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경치가 좋은 사이공 강가를 중심으로는 고급 아
파트가 즐비하다. 분양 중인 아파트의 3.3㎡당 가격이 1,000만원을 넘어가고 있으
니 과히 놀랄 만한 일이다.



전통적인 孝, 관해 문화에서 서구 비즈니스 문화로

베트남은 전통적인 동양권 문화에 속하기는 하지만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로 서구의 문화가 상존한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어른을 공경하고, 학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문화가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설에 해당하는 Tet(음력 1.1일)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10시간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들과 인사를 나눈다. 세계에서 가장 공휴일이 적은 나라¹이지만, Tet 연휴만큼은 주말을 포함하여 보통 7일 이상을 쉰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2월에 Tet 연휴가 있어 공장 가동은 적고, 직원들에게 월급과 함께 보너스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관해 문화, 선물 문화, 음주문화는 경험상 우리나라의 90년대 문화와 비교할만한 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음주와 가무가 빠지지 않는다. 가정마다 노래방 기계를 구비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주 및 가무를 즐기는 흥이 있다. 또한, 고급 드레스를 입고, 와인을 즐기는 파티도 고급 호텔에서는 자주 열린다. 베트남 공무원 및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것도 공식적인 방법보다는 음주를 포함한 비공식적인 방법이 훨씬 자연스럽고, 빠른 시일 내에 가워지는 경우가 많다.



¹ 베트남의 법정 공휴일은 총 9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주 6일 근무로 토요일까지 근무하며, 종교 휴일(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도 없다. 그래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하루 연장되는 대체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고, 외국인 상대 비즈니스가 많아지면서, 급속히 서구적 문화 및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비즈니스 계약은 로펌을 활용한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인허가도 그 동안 소위 뒷돈을 주면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많은 부분 행정적, 법적 절차를 엄격히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당 및 군, 정치인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 정부의 특혜를 활용한 사업은 이제는 대부분 사기가 될 확률이 높아진 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이 되고 있다. 직장 문화도 공식적이고 서구적인 평등 관계가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베트남 직장 문화는 상하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한다. 물론, 업무 면에서는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업무 이외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사무원이 평등하다고 인식되고, 특히, 본인 업무 이외에는 크게 관심이 가지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는 아직 베트남 인력들이 동시에 다양한 업무, 즉 멀티 플레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가 베트남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인들에서 들은 제일 유머러스한 이야기는 ‘베트남 인력들은 껌을 씹으며 계단을 못 오른다’ 것이다.

베트남, 이제 한국과 사돈의 나라

최근 베트남 특히, 이곳 호치민 인근의 경제적 사정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2007년 WTO 가입 이후부터 새로운 나라로 변신하고 있다. 2015년 수출 1,621억 달러, 수입 1,656억 달러로 전체 교역규모가 3,27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3 정도 된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규모는 1988년 집계 이후 3,27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449억 달러로 전체 13.7%로 당당히 1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진출로 이곳 호치민은 항상 한국 기업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베트남에 효과적으로 진출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가 저녁자리 화제의 단골 메뉴다. 현재 4,500여 개의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으며, 15만여 명의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 도시인 북부 하노이, 중부 다낭, 남부 호치민 공항에는 하루 30여 편의 비행기가 인천에서 출발하여 도착하고 있으며, 평균 5,000여 명의 탑승객이 내리고 있다. 또한, 베트남 지방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가는 베트남 신부가 6만 명에 달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한베트남 가정 자녀도 6만 명에 이른다.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협력 관계를 넘어서 과히 친족의 나라, 사돈의 나라라고 불릴 만하게 되었다. ☺

* 필자는 200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협력업무, 산업기술개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FTA 협상 업무 등을 했었다. 2007~2010년 주미국대사관에서, 2014년 8월부터는 주호치민총영사관에서 무역, 투자, 산업, 통상, 에너지지원 등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채로운 삶의 무늬를 지닌 나라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무역 교역국 중 하나이자 많은 사람들이 배낭을 메고, 아름다운 비경을 보기 위해 떠나는 낭만적인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형형색색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는 나라 베트남은 하노이, 호치민은 물론 무이네, 싸파 등 남북을 가로지르며 아름다운 자연의 비경을 뽐내고, 특유의 향과 맛을 자랑하는 수많은 음식과 독특한 문화를 품고 있다. 베트남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소개한다.

베트남 Travel Info.

수도	하노이
공용어	베트남어
종교	불교(12%), 카톨릭교(7%) 등
빅맥지수	\$2.81(세계 43위)
기후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연평균 기온 24.1도, 습도 월평균 83%, 연평균 강우량은 한국의 약 2.4배)
전압	220v
환율	100VND=5.17원
교통	베트남 공항에서는 일반택시나 오토바이 택시 싸움(xe om)을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할 수 있다.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주요 도시의 공항에서는 시내로 연결되는 버스가 운행하기도 한다.
팁 문화	기본적으로 팁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외국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차츰 팁을 주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호텔 및 고급 식당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팁을 주기도 한다. ex) 호텔 포터 : 10,000VND ~ 20,000VND, 침실 청소부 : 10,000VND ~ 20,000VND, 레스토랑 : 음식값의 5% 이내

“ ”

베트남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끊임없는 외침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국민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닌 나라라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베트남에서 꼭 해야 하는 다섯 가지!



- 1 세계 8대 비경으로 꼽히는 하롱베이 가보기
- 2 호안끼엠 호수에서 야경 감상하기
- 3 재래시장에서 현지 문화 느껴보기
- 4 진정한 베트남의 맛! 베트남 로컬 음식 먹어보기
- 5 물의 도시 난빈에서 나룻배 타기



✦ 베트남 맛보기 ✦

국물이 시원한 쌀국수

베트남의 쌀국수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혹은 육수의 종류에 따라 수십 가지 맛으로 나눌 수 있고,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쌀국수는 쇠고기 육수에 숙주나물과 고추를 얹은 뒤 새콤한 라임즙을 짜 넣어 함께 먹는다. 쌀국수의 맛을 내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육수에 있다. 쌀국수는 소꼬리와 갈비, 사태에 계피, 향료 등을 함께 넣어 오랫동안 우려낸 달콤한 육수에 소고기 편육을 얹어 먹는 소고기 쌀국수인 '퍼보(Pho bo)', 그리고 닭의 고기와 뼈를 푹 고아서 만든 담백한 닭 국물에 닭살을 찢어 올린 닭고기 쌀국수인 '퍼가(Pho ga)'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달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베트남 남부 사람들은 '퍼보'를 즐겨 먹는 반면, 담백한 맛을 즐기는 북부 사람들은 '퍼가'를 선호하는 등 쌀국수를 통해 베트남의 지역 간 입맛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단백한 쌈요리 월남쌈

베트남어로 'gỏi cuốn(고이 꾸온)' 혹은 '베트남 쌈'이라고 불리는 월남쌈은 라이스페이퍼(베트남어로 '반짱')에 소면, 당근, 오이 등 각종 채소와 돼지고기, 새우, 버섯 등을 싸먹는 베트남 전통 음식이다. 합지쌈으로도 불리는 라이스페이퍼는 쌀을 곱게 빻아 물을 붓고 반죽한 뒤 적당량을 팬 위에 살짝 부어 구워내어 대나무 틀 위에서 말려낸 식재료다. 뜨거운 물에 라이스페이퍼를 살짝 적신 뒤 각종 야채를 싸먹기도 하며, 생선과 고기를 샤브샤브처럼 데친 뒤 싸먹기도 한다. 여기에 피시소스와 고추를 썰어 만든 소스나 땅콩버터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소스를 곁들인다.

✦ 외국인 많이 모이는 곳에선 언제나 조심! ✦

최근 들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와 절도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쇼핑지역 등에서 발생한다. 하노이의 경우 호안끼엠 호수 주변, 문묘, 호치민 묘소, 민속박물관 주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와 Big-C, Metro 등 대형 할인매장에서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외국인의 출입이 특별히 금지되는 지역은 없으나 시내·외를 불문하고 베트남 전역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어 출입과 사진촬영 등을 통제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안내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여행지 중에서는 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묘소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진촬영 금지구역이다.

✦ 베트남 돌아다니기 ✦

한쪽의 그림이 되는, 하롱베이

하롱베이에는 3,000여 개의 섬이 있다. 이 많은 섬이 바다와 하늘과 어우러져 그려 내는 풍경을 감상해 보자. 마치 3,000여 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에 웅크리고 있는 듯한 경치는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배를 타고 가까이 가면 뽀뽀 바위, 개 바위, 귀부인 바위, 물개 바위, 엄지손가락 바위 등 각양각색의 바위들이 황홀한 자태를 드러낸다.

낭만적인 숲속 마을, 난빈

난빈의 고즈넉한 마을 호아루는 찐 왕조가 탄생한 곳이다.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는 석회암 바위들은 천연 요새가 되어 주었다. 찐 왕조는 몽고의 침입을 세 차례나 막아내고 베트남 남부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난빈에는 게릴라 전술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낸 찐 왕조와 찐흥다오(Tran Hung Dao) 장군을 기리기 위한 타이비 사원이 자리 잡고 있다.

젊은 베트남 연인이 많은,

타오 당 공원

프랑스가 지배하던 시절의 흔적들은 호찌민 내에 역력하게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크고 작은 규모의 공원들은 현재의 베트남인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공원에 모여 배드민턴을 치고 소일하며 더운 땀을 나무그늘에서 식힌다. 한창 더운 날씨를 피해 움직이는 베트남 사람들은 이른 새벽의 공원을 유유히 걸어 이용한다. 타오 당 공원은 그중에서도 연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조경이 잘되어 있어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는다.

웨딩 사진 장소로 인기 많은 곳, 노트르담 성당

주말이 되면 프랑스에서 공수해 온 자재로 지어진 대성당의 이국적 풍경을 배경으로 결혼사진을 찍는 신혼부부들이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현재 9,340만여 명(2014년 7월 기준)의 베트남인 중에서 12%가 불교를 믿고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으로 7%가 가톨릭교를 믿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베트남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유교적 사상이다.

단 하루 만에 느끼는 사계절, 싸파

아침이나 오후에는 봄, 가을 날씨처럼 시원하지만, 한낮에는 여름 날씨로 돌아와 벌이 뜨겁고 구름이 드리워지기도 한다. 저녁에는 서늘하다. 여름철 한낮에는 우레를 동반하지 않은 짧은 폭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비가 지나간 뒤 무지개가 걸린 싸파는 환상적인 느낌이 가득한데, 이로 인해 이곳은 수년간 시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다. 싸파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려면 4월~5월이 적기이다. 4월 이전에는 춥고 안개가 심하며, 5월 이후에는 우기가 시작된다. 이 시기의 싸파에는 꽃이 만개하고 초원에 푸르름이 선명하다. 이른 아침 계곡에는 구름이 피어나기도 하지만 금세 걷힌다. ☹

베트남 트렌드 한눈에 보기

직접 꾸미는 인테리어와 한국산 조미김 열풍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평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방식의 라이프스타일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좋은 공간에 대한 수요는 인테리어로 이어지고, 건강한 식문화는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연결된다. 인테리어와 한국산 김이 인기 있는 이유도 그와 같다.

Trend 1 내 집은 내 손으로 꾸밀래

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는 2015년 베트남의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약 111조 동(48억 7,734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소비자들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2020년에는 142조 동(62억3,948만 달러)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2년 사이 현지 소비자들(대도시 중심)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중고 인테리어 소품 거래까지 집계한다면, 해당 시장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사기관은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수요가, 신축 아파트의 공급 확대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있다고 분석했다.

좁은 공간 활용한 현대적 인테리어 인기

특정 신개발 주거지역 내 주택을 제외한 베트남의 일반적인 주택은 폭이 좁고 층수는 높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폭은 보통 5m 이하이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프랑스 식민시절인 19세기 후반 혹은 20세기 초부터 생겨났는데, 건물이 도로에 닿는 폭의 길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 것이 시작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토지비용 절감을 이유로 건물이 길쭉한 모양새로 설계됐고,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층을 높게 짓는다. 보통 지상은 오토바이를 들여놓는 공간 또는 가게를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거층은 2층부터 인데, 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경우 몸이 불편한 연장자가 2층에서 생활한다. 더불어, 신축 아파트 외의 베트남 가정은 대부분 조상신이나 종교의 신을 기리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베트남 젊은 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가구 디자인은 가볍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공간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들이다.

✦ 베트남 인테리어 트렌드 ✦

① 기성세대는 고전적인 원목가구, 신세대는 '가벼운 느낌의 가구' 선호

현재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가구들은 80%가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주변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베트남의 최대 가구 수입국은 중국으로, 품질은 높지 않으나 가격이 저렴해 베트남 시장에서 대거 소비되고 있다. 젊은 층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가구 디자인은 가볍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공간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들이다.

② 디지털 도어락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

아직 베트남에서 디지털 도어락은 보편적인 잠금장치가 아니나, 1~2년 사이 아파트 건설업체와 다세대 주택 거주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주거지 형태는 주택으로, 절도 범죄가 많아 2중 현관문을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경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2중 현관문보다 간편하고 현대적인 잠금장치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수요도 늘고 있다.

③ 세라믹 타일 대신 '나무 마루' 수요 급증

베트남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개 한국과 같이 실내에서 신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이며 일반 가정집의 바닥은 대부분 세라믹 타일이다. 공식기관을 통해 숫자화된 자료는 아직 없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무 마루에 대한 선호도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나무 마루가 주로 쓰이는 곳은 고급 주택이나 신설 아파트이다.

Trend 2 건강 위해 행거 먹는 한국산 김

베트남에는 크게 '마른김'과 '조미김' 두 가지 종류의 김이 유통되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요리를 위한 '마른김' 혹은 '곱지 않은 김'보다는 '조미김'을 더 선호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베트남인들이 김을 스낵용으로 간편히 즐겨 먹기 때문이다. 김 제품을 취급하는 현지 딜러를 역시 작은 조각형태의 조미김 제품이 A4사이즈의 일반 마른김보다 훨씬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조미김의 경우 오리지널 맛, 바비큐 맛, 김치 맛, 칠리 맛, 바다향 맛 등 여러 가지 맛을 가진 제품이 존재하며 고루고루 인기를 얻고 있다. 구운 김의 경우 참기름, 올리브유, 포도유 등 여러 가지 오일 종류의 제품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베트남인들에게 선호되고 있는 오일 종류는 아직까진 없다.

한국산 김이면 브랜드 관계없이 좋아하는 편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다. 베트남 내 유통되는 김은 대개 한국, 일본, 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베트남산 김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주요 한국산 브랜드 김 제품으로는 갯바위, 동원, 그린월드, 진풍식품,



베트남인들은 특별한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기 보다는 '한국산 김'이라는 원산지 및 국가 브랜드에 의존해 김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포장 종류는 5g X 3팩짜리 형태의 포장이다.

샘표, 미역김, 자반, 등 수많은 브랜드가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베트남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김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제품의 경우, 김 제품은 주로 Big C, Coop Mart, 롯데마트, 이마트, Vin Mart 등과 같은 베트남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한국 식품점에서도 한국 교민 및 베트남인들에 의해 구입되고 있다. 조미김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포장이 존재하며, 가장 일반적인 포장 종류는 5g X 3팩짜리 형태의 포장이다.

한국산 김 왜 인기가 많을까?

김이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인들이 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인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면서 자연스레 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인들은 김을 김치 다음으로 한국의 건강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산 김 수요가 증가 추세다. 또한, 한류 효과로 한국산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김도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외에, 호찌민 및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식당 및 일식집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인들의 김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점차 상승하는 중이다.

현지의 한국인 및 일본 교민들 역시 김 제품의 주요 수요자다. 특히 베트남 내 한국 교민 숫자는 약 12~13만 명으로, 외국인 교민 중 가장 많은 수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산 조미김은 베트남에서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한국산 김’ 베트남 시장에서 인기>, 호찌민 이동현 무역관
<새 집 증가하는 베트남, 인테리어시장도 변한다>, 호찌민 윤보나 무역관

어려운 무역기사 쉽게 읽는 법

① 비관세장벽을 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관세 용어

“각국이 한국을 겨냥해 지난해 새롭게 착수한 반덤핑관세 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7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덤핑 규제**는 덤핑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 타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제보다 쉽게 적용된다.”

(2007. 01. 08, 연합뉴스)



①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반덤핑 관세는 1904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② 상계관세 [compensation duties, 相計關稅];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상계관세는 외국의 산업장려정책이나 수출촉진정책에 입각한 부당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로 강력한 무역구제조치로 꼽힌다. 수출국으로서는,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은 그만큼 상품가격이 낮아져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수입국으로서는 해당 산업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수출국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상쇄하도록 상계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다.

③ 세이프가드 [safegu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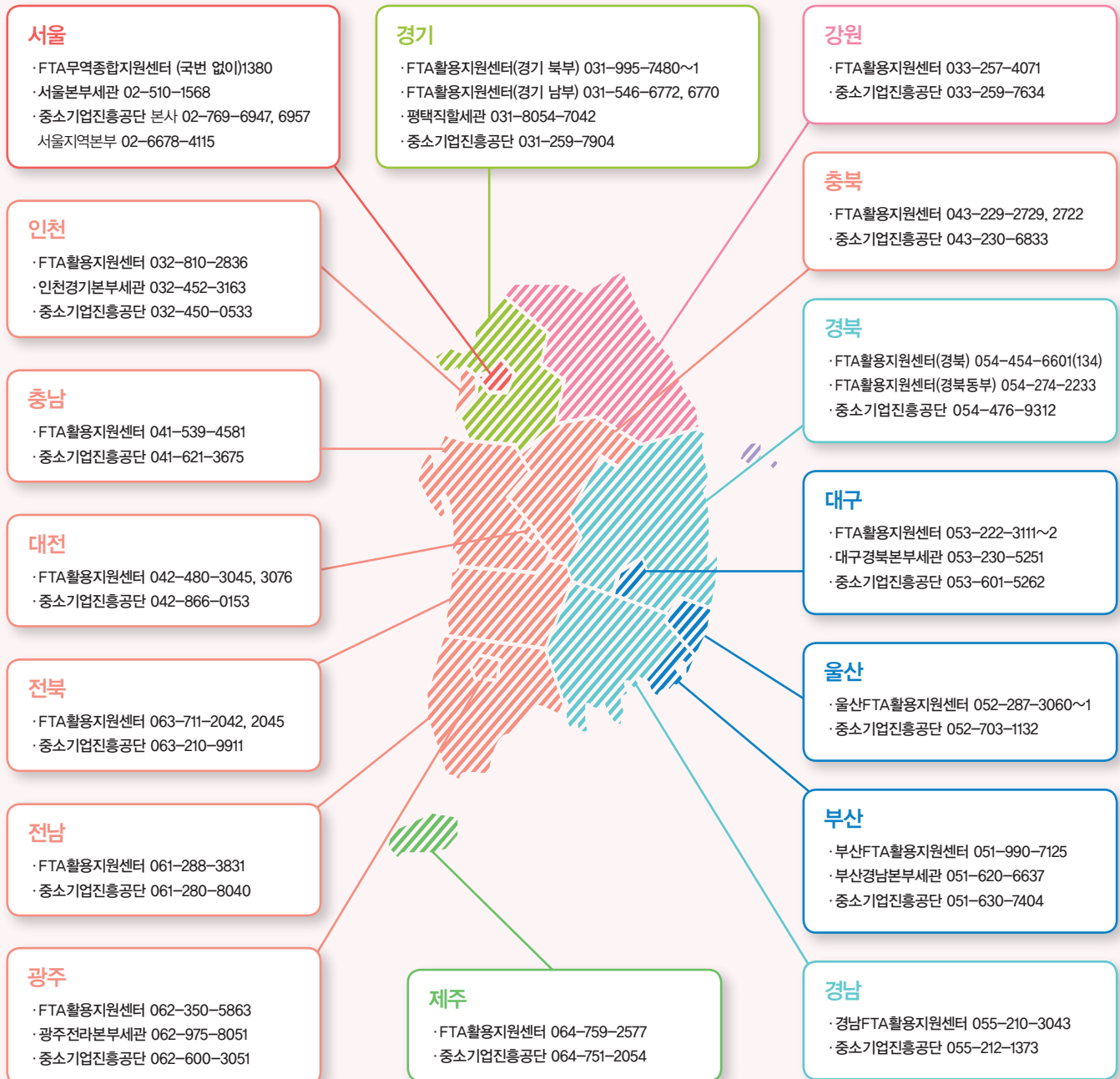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무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다른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비해 적용 방식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를 반영해서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㉞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현장에서의 배움을 통해 무역 전문가의 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지난 2016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생부분 대상을 수상한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전성현, 강경준 학생은 중국 시장을 타깃으로 한 '임플란트' 기술을 아이템으로 선정해 중국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세계를 무대로 소통하는 협상가를 꿈꾸는 무역학도들에게 FTA와 무역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충남대학교 무역학과에 다니고 있는 전성현, 강경준이라고 합니다. 무역학과에서는 무역의 전반적인 실무와 보험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관계를 통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탐구를 합니다.

FTA 활용 경진대회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문희철 교수님의 무역현장실습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강의가 현장실습, FTA 활용 방안, 경진대회 참가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까지 종합적이고 실무에 가까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했죠. 충남·대전 지역 무역 관련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과 무역과 관련된 사무를 맡고 있는 현역들로부터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접하면서 무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나만의 사업 아이템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찾아보기도 했죠. 특히 관세청의

FTA 무역인재양성프로그램에 따라 FTA 특강을 맡아주신 대전세관 주무관님을 통해 이번 경진대회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한 아이টে이으로 가상의 사업안까지 만들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판단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아이টে이을 선정한 것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아이টে이 선정하기에 앞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된 가치 혹은 욕구 중 물리적인 충족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물리적으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টে이 중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 범위를 좁혀나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의 3대 욕구인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중 2세기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인구 고령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식욕을 선정하게 되었죠. 식욕 활동의 질적 개선은, 무치악 발병률이 높은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질적인 식욕 활동에 필요한 니즈를 충족하는 데 필연적이라고 판단하여, 치아 건강에서 특히 임플란트의 예상 시장을 발굴, 선택하게 되었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번 수상작은 2014년 12월 한중 FTA 체결 이후 의료기기에 대한 낮은 관세율과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한중 합작투자를 통한 중국 현지 병원 설립이 가능해짐을 이용해, 낮은 관세율은 물론 FTA로 개방된 중국 의료시장에 높은 경쟁력과 차별화된 한국 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적극적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충대임플란트’라는 회사를 중국으로까지 진출하여 법인 회사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충남대학교 치과 대학의 동문들, 대전치과과의사회 소속 치과 의사들과 중

국의 가상 법인회사 (주)충청파워의 한중 합작 투자를 통한 의료 서비스 교환 그리고 MOU 체결 후 충청에 ‘충대치과병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 제공에 성공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상 사례 가운데 기억에 남는 참가자가 있었나요?

실제 기업 사례들이 대부분 흥미로웠습니다. 각 업종마다의 수출 방법, 원산지증명 노하우, 관세 특혜 사례, 시스템 구축 방법 등 현장에서의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았죠. 특히 참여 기업 중에 임플란트 세공 기기를 만드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물어보시기도 했어요(웃음). 추후에 사업을 정말로 진행할 수 있다면 함께 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FTA에 대한 무역학과 학생들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인가요?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지만 무역학과에서 FTA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수업은 무척 적은 편입니다. 저희 역시 이번 현장강의와 경진대회 경험을 통해 FTA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았습니다. 또 실제 기업인과 세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알게 된 채널이 많아졌죠. 무엇보다 사업 아이টে이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습니다. 1~2학년 때부터 이런 실무적인 성격의 강의들이 많다면 전문성을 갖추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무역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강경준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중국발 피싱 사이트 등을 통한 사기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장벽을

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없는 상황 이구요. 민과 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해결책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성현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R&D 지원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발을 통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라이선스나 특허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단기적 성과 위주의 문화가 개선되고 또 특허권자의 이권이 지켜지는 문화와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역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통상 분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전 세계가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으로 업무를 국한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세계 어딜 가든 통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큰 매력이자 도전거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전성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통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또 통상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든 협상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인 자립과 사회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그 지역 문화와 가치관을 몸으로 흡수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필요하죠.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어디에서나 성공적인 협상을 이뤄낼 수 있는 국제시민으로서의 역량 있는 협상가가 되고 싶습니다.

강경준 졸업 후에 무역 실무를 익힌 후 제 사업을 직접 해보고 싶습니다. 무역학과에 있지만 인문학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도 철학동아리에 오랫동안 참여해오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네트워크를 쌓고 수익도 창출해보고 싶습니다.☺

농어업인 FTA 우수사례: ①경기 안성시 고바우농장

글 박주연 기자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경기 안성시 고삼면에 자리한 고바우농장은 스마트팜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인력 효율화 등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스마트’한 돼지 사육으로 효율적인 농장을 운영합니다!

돼지 사육이 스마트해지고 있다.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고바우농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현대식 한국형 돈사를 구축하고
사육부터 출하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한국형 스마트팜’을 만들어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똑똑한 농장 시스템, 스마트 팜

최근 축산 분야에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다.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TA 지원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은 기존 축사 운영방식을 현대화함으로써 생산력 향상과 노동력 절감,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5년 서울대가 전국 55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농가 생산성은 25.2%, 품질은 12% 향상됐고, 인건비는 9.5% 절감되어 농가 총 수입 향상률이 30.6%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농가 보급률 30% 이상을 목표로 ‘한국형 축산 스마트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란?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한국형 축산 스마트팜’이 있다. 선진국의 첨단 생산시스템과 시설·경영 관리시스템을 우리나라 축산업과 시설 등의 조건에 최적화하고 시설·지재·설비를 국산화하는 사업으로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CT) 융합축산 생산·경영 시스템이다.

1 돈사 내부를 살피는 설재식 대표와 아들 설수호씨 2 고바우농장의 분뇨 정화처리시설



MINI INTERVIEW

설재식 고바우농장 대표

농가, ICT 시스템 기술적 이해 뒷받침 시설 구축 후 지속적 모니터링도 필요

“ICT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부나 농가 모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ICT는 만능이 아닙니다. 실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잘 다룰 수 있어야 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IC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돈사환경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눈에 띄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동물복지형 농장은 생산성 면에서는 눈앞의 이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고 가야 할 길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돼야 하며 농가 스스로도 지원사업의 기대효과에 기대지 말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고삼면에 자리한 고바우농장은 스마트팜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인력 효율화 등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설재식 고바우농장 대표는 35년간의 양돈업 경력을 바탕으로 아들 설수호씨와 함께 현대식 양돈 시스템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고바우농장은 2014년 양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5억 8,000만원(국비 1억 5,000만원, 융자 2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8,000만원)을 들여 2014년 7월 연면적 1만 5,34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현대식 돈사를 갖췄다.

돼지 1만 1,000마리(모돈 8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고바우농장은 돈선별기, 포유모돈자동급이기, 임신돈군사급이기, 액상급이기 등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MSY(모돈당 출하마릿수)가 24마리에 달하는 등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고 있다.

액상급이시스템 및 사육부터 출하까지 원스톱시스템 도입

고바우농장의 모든 설비는 ICT 기술로 제어되고 관리된다. 돈사 내부의 상황은 사무실 안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통제가 가능하며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온도나 습도 등을 제어할 수 있다. 특히 RFID(무선통신장치) 기반의 액상급이시스템 등 ICT 기술 도입으로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크게 절감

했다. 액상급이시스템은 돈방별 사료 급이량을 설정하면 물과 사료를 배합한 적정량의 액상 사료가 개체별로 자동 공급되는 방식이다. RFID로 각각의 개체를 식별해 적정량의 액상 사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고바우 농장은 돈사 관리의 효율성과 동물복지 면에서도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설 대표와 아들 수호 씨는 돈사 구상단계에서부터 특색 있는 한국형 돈사를 꿈꿨다. 그 결과 우리와 기후특성이 다른 외국식 돈사를 무작정 도입하기보다는 한국의 기후와 습도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돼지 사육방식을 유럽의 동물복지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신식 돈사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단층의 돈사를 여러 동으로 짓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건물에 여러 층을 둔 다층형 돈사를 건설한 점은 고바우농장의 큰 특징이라 할 만하다. 이를 통해 하나의 돈사에서 사육부터 출하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원스톱시스템’을 적용해 관리환경을 최소화함으로써 돈사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동시에 돼지가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분뇨처리·악취저감 등 쾌적한 돈사환경 유지

축사시설 현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이다. 고바우농장은 ‘통배 발효 퇴비화 및 정화 방류식’ 분뇨 처리 방

식을 채택, 가축 분뇨를 톱밥과 혼합해 발효시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거나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한 뒤 방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뇨로 인한 악취를 80~90% 저감해 환경오염 문제와 민원 발생 문제를 해소했다. 또 순환식 자동환기시스템을 갖춰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구를 통해 내보낼 수 있도록 했으며, 돈방마다 온도 센서를 설치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돈사 내부의 환경을 쾌적하고 균일하게 유지함으로써 돼지를 키우는 환경이 좋아지고 폐사율이 대폭 줄어드는 등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다.☺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소고(小考) 대화와 협상 통해 장벽 해소할 수 있는 통상 역량 갖춰야

영국의 하드브렉시트에 이어 이탈리아(Italexit) 등 추가적 EU발 엑소더스(Exodus)의 가능성과 미국 오바마 정권 하 TPP 발효 실패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듯 하더니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후보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이제 보호무역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까지 더해져 새해벽두부터 우리 대외무역에 난제가 가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안이 절실하다.

최근 중국 비관세장벽 대두의 배경

TPP 불참에 대한 지탄과 자성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미국 정권의 레임덕 시기와 트럼프 체제의 보호무역 기조로 당분간 TPP 좌초가 예상됨에 따라, 비슷한 시기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과 한·중 FTA를 타결, 발효시켜 놓은 것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복안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외교, 안보적 의견 차이로 한중 관계에 간극이 발생했고, 최근 몇 달 간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양적, 질적으로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미 작년과 재작년, 대중 수출 감소를 경험한 우리로써는 올해 이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 상황 타계를 위한 대책마련 고심이 시급하다.

I. 상품 분야

한류에 힘입어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국산 화장품은 최근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상품이다. 그 외에 식품, 양변기, 전기차 배터리에 공기청정기까지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상품군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품 교역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관 지연'과 '수입 불합격 판정'이다. 우선 통관 지연의 경우엔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자유무역 정신에 기초한 GATT 제5조 '통과의 자유'나 제8조 '수입과 수출

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에 입각해 논쟁의 소지가 없지 않다. 특히 제8조에서는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서류부터 검역, 위생검사 등까지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고 불필요한 절차는 최대한 줄여갈 것을 중용한다. 더불어 중국은 2015년 9월 WTO 무역원활화 협정¹ 기탁국이 됨으로써 한·중 무역에서의 통관절차 지연 등은 모순성을 내포한다. 나아가 같은 해 12월 발효시킨 한·중 FTA는 한·중 양자 간보다 자유롭고 원활한 교역을 위한 약속이다. 통관 지연의 이유가 보다 명명백백해지길 기대하는 이유다.

수입 불합격 판정의 대표 사례로 화장품과 공기청정기 등을 들 수 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엔 제품의 안전성, 화장품의 경우엔 대부분 서류 미비 혹은 일부 성분의 함량 기준 초과가 문제였다. 화장품이나 공기청정기, 식품의 경우엔 자국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한해 GATT 제20조에서 예외적으로 수입 제한을 허용하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협정에서도 그 정당한 취지에 심본 공감해주고 있어 일방적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비난하거나 철회를 요청하긴 쉽지 않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앞선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SPS와 TBT협정 모두 관련 규제조치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이해당사국에게 신속히 공표해야 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중 FTA를 통해 관련 협력이 더 강화되고 보다 예측 가능했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에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1
지난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합의된 WTO 무역원활화 협정은 WTO 회원국의 2/3가 국내 비준을 마칠 시 최종 발효되는데 한국은 그 중 9번째 기탁국이다. 2017년 1월 20일 기준 WTO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협정이 최종 다자협정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4개 회원국의 국내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중국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무역과 경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컨틴전시플랜 마련이 시급하다.



II. 서비스 분야

일본 혐한류(嫌韓流)가 연상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또는 금한령(禁韓令)은 우리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모바일 게임, 전세기 운항, 방송 송출 및 연예인 출연 금지 등) 교역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한령이란 중국이 한류 콘텐츠 등에 대해 자국 내 활동을 제재하는 방침이다.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여론 등에 대한 업계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이지만 본격적인 서비스 비관세장벽이 대두한 시기로 미뤄보아 이는 양국 간 외교 및 안보 의견 차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서비스 교역에서 대중투자가 관련한 경우 한·중 FTA 내 ISD조항(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양국의 외교관계 상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결론

대한국 비관세장벽의 경우 그 절반이 중국에서부터 비롯된다는 통계다. 대중국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무역과 경제는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한류의 인기가 높은 중남미와의 FTA나 신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 무역의 자강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 또한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말한 바와 같이 보호무역을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기조에 대해 연행일치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 외교 및 안보 기조에 동참하지 않으며 한국과는 안보 마찰을 이유로 비관세장벽을 제고, 유지함은 이율배반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또, 한국은 한·중 FTA를 통해 양자 간 긴밀한 대화채널을 이미 마련해 놓은 만큼 이를 적극 활용,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통상 역량 또한 갖춰야 할 것이다.㉠

중국 비관세장벽 뛰어넘기

글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보건복지부는 향후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통관불허 사례를 분석한 사례집과 통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인허가 및 통관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자.



중국서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에 ‘비관세 장벽’ 실태 점검

최근 한국산 화장품의 무더기 수입 불허 등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중국의 화장품 품질관리 규정이 까다롭게 바뀌면서 중금속 함유량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한국 업체들은 새로운 생산 및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 CFDA 위생허가증 등 관련 중국 법규 반드시 준수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CFDA)이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는 CFDA에 해당 제품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화장품위생감독조례에 따르면 중국의 위생허가증은 각각 제품별로 발급되는데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나오는 같은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위생허가 취득 후 라벨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명/ 판매원, 제조사의 정보/ 수입화장품 원산국 정보/ 순함량/ 전성분 표시/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 생산번호, 유통기한/ 제품표준번호/ 수입 비특수 화장품 위생허가 등록번호 혹은 수입 특수 화장품 허가번호/ 수입상 정보/ 안전경고문구(필요 시) (15g 혹은 15ml 이하 제품, 필수표기사항 아님)

SPF 표기 50이상에만 적용

2015년 12월 23일 발표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화장품의 위해물질 안전관리, 화장품 감독관리 효율성 등과 같은 다양한 검사 방법을 다루

✦ CFDA 위생허가 신청 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

Q. 재중책임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재중책임회사 동의 없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재중책임회사의 의사는 상관없으나 수권서 공증본, 수락수권서 공증본을 갖고 있다면 변경 시에 도움이 된다. 부가적으로 재중책임회사 변경이 완료됐다면 기허가 받은 제품의 위생허가증의 재중책임회사도 변경해야 한다. 물론 필수는 아니다. 추후 통관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기존 재중책임회사에 위임했던 권한을 철회한다는 성명서와 새로운 재중책임회사와의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보통 3개월 안에 처리된다.

Q. 리필용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A. 배합비가 같다면 용량이 다른 케이스가 다른 하나의 위생허가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라벨만 다르게 표시해서 수출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Q. 매니큐어와 같이 색상만 다른 제품은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

A. 성분표 안에 색소 배합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아 수출해야 한다.

Q. 한 컨설팅회사가 '판시'를 이용해 3개월만에 위생허가증을 받아준다는데

A.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렇게 해준다고 접근했던 기업이 주장했던 기간 안에 실제로 위생허가증을 받은 사례 또한 없다.

Q. 제품의 소비자층을 변경하기 위해 성분을 바꾸고자 하는데

A. 제품의 처방이 변경된다는 것은 제품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신제품으로 간주해 위생허가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Q. CFDA 심사접수증만으로 수출이 가능한가?

A. 'CFDA 심사접수증'만으로 중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 다만 간혹 중국 수입상 측에서 접수증을 요구하는데 접수증이 나왔다는 것은 'CFDA에 접수를 했고 조만간 허가될 것'이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정식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허가증'이 필요하다.

자료 인용 무역협회,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고 있다. 만약 해당 제품이 개정된 기술안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CFDA 등록을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자외선차단 화장품의 자외선차단효과 표시가 변경됐다. 달라진 표시로는 자외선차단지수(SPF) 표기 방법이다. 그동안 SPF가 30이상은 '30+'표기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이상에만 적용된다. 즉 실제 측정된 SPF값이 50보다 클 경우 'SPF50+'로 표시해야 한다. 장파자외선(UVA) 자외선 보호효과 표시도 달라진다. UVA 자외선 차단효과 표시는 PFA값의 실제 측정 결과에 따른다. 예를 들면 제품라벨상 표시하는 UVA 보호등급은 'PA'이며 'PFA'값이 2보다 작으면 UVA 보호효과를 표시하지 않는다. PEA 값이 2~3인 경우, 'PA+'로 표시하며 PFA 값이 4~7인 경우 'PA++'로 표시 한다. PFA값이 8~15이면 'PA+++'로 표시한다. PFA값이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PA++++'로 표시한다.

인증 발행

중국 화장품 인증 분야 및 품목 인증 발행기관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과 국가질량 감독검험총국(AQSIQ)이다. 먼저 CFDA는 국무원 식속기관으로 화장품의 안전을 감독 관리하는 기관이다. 화장품 안전 법률법규 초안을 작성해 화장품 행정허가 절차의 재정 및 시행을 담당한다. 이어 AQSIQ는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중국의 출입경 상품 검사, 출입경위생검사, 출입경동식물 검역, 수출입 화장품 안전과 인증 인가, 표준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수출입 화장품 및 생산업체의 위생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입 관련 품질의 인증 및 인가 업무를 담당한다.

인증 절차

비특수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해 제품에 첨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하는 제품이 중국에서 정한 규격에 맞는지 검토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 제품의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하는 제품의 몇몇 성분이 중국에 사용 가능한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성분을 반드시 수정해야 위생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특수 화장품 위생허가 인증절차는 '사전검토→ 재중책임회사선임→ 접수서류 준비→ 시험·검측→ CFDA 행정접수→ 위생허가증 발급' 등이다. 여기에 재중책임회사는 국내 신청기업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중국 법인으로 CFDA에 등록하고 신청제품을 CFDA에 직접 신청하는 주체가 된다. 재중책임회사는 CFDA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회사다. 이에 따라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업체는 재중책임회사 선임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 원칙상 국내 업체가 수출하기 위해 위생허가증 원본이 필요한데 재중책임회사가 사후관리를 위해 위생허가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험·검측의 기간은 약 2~3개월가량 소요되고 CFDA 행정 접수할 때 제품 중문명칭 명명 근거, 제품 처방, 제품 품질 안전 통제 요구 등 총 13가지 서류로 구성된다.㉔

중국 IP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① 마이클 조던(Micheal Jordan) vs 차오단(Qiaodan, 喬丹)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사진 한국경제신문

연예인 이름의 상표권 선점 당한 경우, 성명권을 우선적인 권리로 주장해야

한류 드라마, 가요 등 콘텐츠와 함께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한국 연예인들의 이름은 해당 콘텐츠와 함께 중국 시장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로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중국 소비자들에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호소력을 끌고 있어, 그에 대한 상업적인 가치가 크다.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중국 시장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미국 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과 중국 의류 브랜드 업체인 차오단스포츠(www.qiaodan.com)과의 상표권 분쟁에 관한 판결이 있었고, 해당 판결이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한다.

사건의 개요

중국 푸젠성 소재 차오단스포츠(Qiaodan Sport, Co: 乔丹体育)는 1984년 설립되었고 중국 전역에 약 6,000여 개의 매장을 갖추고 있으며 연 매출이 10억 위안(한화 약 1,700억원) 정도로 규모가 큰 스포츠 의류 브랜드 업체이다. 차오단스포츠는 2000년 이래 의류, 운동화, 가방 등 다양한 스포츠 상품에 'QUIODAN', '乔丹', '桥丹', '喬丹' 등 'JORDAN'의 중국식 발음과 매우 유사한 다수의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마이클 조던(Micheal

Jordan)은 1984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활약한 전설적인 미국 NBA 스타 농구 선수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선수이며, 1985년부터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 업체인 나이키와 함께 'Air Jordan'이라는 조던의 덩크슛 장면을 함께 사용하는 브랜드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양 당사자 간 분쟁의 발단은 차오단스포츠가 중국에 먼저 등록하여 사용하였던 상표권인 "乔丹"의 중국식 발음이 'JORDAN'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고, 마이클 조던이 2012년에 차오단스포츠의 등록된 상표권의 무효를 상표평심위원회에 제기하면서 관련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분쟁 과정에서 차오단스포츠는 마이클 조던이 제기한 상표권 분쟁으로 신용과 명예를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마이클 조던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참고> 양측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비교 ✦



하급심 쟁점 및 분쟁 경과

상표평심위원회는 차오단스포츠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마이클 조던 측은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또 다시 불복하여 항소 제기한 베이징고급인민법원에 서도 모두 패소하였다. 중국 법원 제도는 2심이 기본이며, 예외적으로 고급인민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의 형식으로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불복이 가능한데, 마이클 조던 측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재심을 받아드려 판결을 내린 사안이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①구(舊)「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제31조는 상표 등록에 있어 타인이 확보한 우선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적인 권리들에는 보통 저작권, 디자인권, 트레이드 드레스 등이 있는데, 구 상표법 제31조에 따른 우선권에 외국인의 성명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해당 상표의 등록 당시 그러한 성명권을 획득하였는지, ②구(舊) 상표법 제10조에 따른 사회주의 도덕과 풍속을 해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표인지 여부, ③구(舊) 상표법 제41조의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인지 여부, ④ 성명권으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하여 등록 상표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1심과 2심 하급심에서 마이클 조던 측은 앞서 설명한 성명권을 우선적인 권리로 주장했으며 차오단스포츠 측은 마이클 조던이 유명세를 얻기 전인 1970년대부터 중국에서 'JORDAN'을 중문 '乔丹'이라고 음역해왔으며, 차오단스포츠가 차용한 '乔丹'과 마이클 조던은 다른 인물이라 성명권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JORDAN'은 흔한 영어 이름에 불과하여 독창성과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러한 성명권을 '마이클 조던'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2심의 하급심 베이징고급법원은 'JORDAN'을 미국에서 보편적인 성씨이며, '마이클 조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1심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마이클 조던 측에 패소 판결하였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내용 및 시사점

우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인민공화국 민법통칙(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通则)」 제99조 및 「중국인민공화국책임권 책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2조에 근거하여, 성명권이 구 상표법 제31조의 우선적인 권리가 될 수 있으며, 성명권이 상표법 상 우선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i) 특정된 이름이 중국에서 명성을 가지고, 관련된 공중에 매우 잘 알려져야 하고, ii) 관련된 공중이 그 특정된 이름을 해당 자연인을 언급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iii) 특정된 이름과 해당 자연인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에서, '乔丹'이라는 중문 표기가 중국에서 널리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점, 다양한 경우에 이를 '마이클 조던'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는 점, 재심 청구인들에 의한 2번의 조사에서 인터뷰 응답자의 85%와 63.8%가 '乔丹'을 제시하였을 때 첫 번째로 연관되어 생각되는 것이 재심청구자인 '마이클 조던'이지 차오단스포츠가 아닌 점, 마이클 조던의 성(surname)의 중문 번역인 '乔丹'과 '마이클 조던'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점을 이유로, 재심청구인은 '乔丹'을 사용한 성명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차오단스포츠의 'QIAODAN' 영문 상표에 관하여는 마이클 조던의 성명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타 나머지 마이클 조던 측은 상표법 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성명권을 우선적 권리로 하는 상표 무효 심판 청구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만 제한하였다.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중국에서 많은 유명세를 얻으면서 상업적 이용 가치가 높아, 이에 편승하려는 중국 기업들 또는 개인의 상표권 선점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유명인에 대한 성명권을 중국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인민법원의 판결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명권을 우선적인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이며, 성명권을 우선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쟁 과정과 별도의 요건이 요구되므로 보다 선제적인 상표권 전략이 여전히 요구된다. ☹

품목분류(HS 코드), FTA 활용의 첫 단추를 꿰는 가장 중요한 작업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총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지금도 중미, RCEP 등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FTA 시대가 온 지 어느덧 14년 차에 이르면서 FTA 활용이 일상이 된 기업 담당자의 FTA 관련 지식은 상당한 수준에 다다랐다.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FTA가 어렵기만 할 것이므로, FTA 초보자를 위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절차에 대해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I. 사전준비 단계

- ① FTA 협정국 확인하기
- ② HS code(품목분류) 확인하기
- ③ 양허품목 여부 및 양허세율 확인하기
- ④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하기

II. 서류준비 단계

- ⑤ 원산지증빙서류 준비하기
- ⑥ 원산지 판정하기
- ⑦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하기

III. 사후관리 단계

- ⑧ 서류보관 및 관리하기
- ⑨ 사후검증 대비하기

FTA 활용에 있어 9가지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I. 사전준비단계 II. 서류준비단계 III.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했다.

FTA 활용하기: 1. 사전준비단계

가. FTA 협정국 확인하기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 중인 국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FTA 활용의 첫 걸음이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총 15개 협정이 발효 중에 있으며 국가 수 기준으로 52개국이다. 특히, 한·EFTA, 한·아세안, 한·EU FTA의 경우 하나의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와 동시에 체결한 FTA이므로 협정 이름만 가지고는 모든 발효국가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ex)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으로서, 한·EU FTA에서의 협정국이므로 FTA 활용 가능

나. HS 코드(품목분류) 확인하기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HS 코드로 분류된다. 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등을 바탕으로 해당 물품의 적절한 HS 코드를 찾아 분류하는 것을 품목분류라 한다. 각 FTA 별로 HS 코드에 따라 양허대상, 양허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FTA 활용을 위해서는 HS 코드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6자리 외에 뒤에 4자리를 더 붙여서 HSK 10자리까지 사용한다.

※ ex) HS 코드 분류 체계(제8708.95호)

87	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1000	에어백
		9000	기타
류			
호			
소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제품이 등장하면서, 동일한 물품에 대해 국가별로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FTA의 적용을 통해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수입국이므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통용되는 HS 코드가 무엇인지 수입자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FTA 활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양허품목 여부 및 양허세율 확인하기

FTA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FTA가 발효된 국가에 수출입되는 물품은 모두 관세가 0%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FTA가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FTA에서 정하는 품목(양허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가 인하된다. 또한 양허 품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인하되는 세율이나 범위가 상이하다. 수출물품의 양허 품목 여부 및 양허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코드를 알면 협정문 상의 양허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해당 물품의 관세가 이미 0%이거나, 관세는 있지만 양허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FTA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FTA 적용을 통한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확히 얼마만큼의 인하 혜택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원산지결정기준(PSR) 확인하기

양허세율을 확인한 결과 FTA 활용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활용이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할 차례이다.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가 우리나라에서 FTA 발효국으로 수출된 물품이라면 무조건 FTA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입국에서 통관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원산지증명서가 적절하게 발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물품에 대해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또는 원산지 기준)은 말 그대로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뜻하며,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을 통해 그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PSR은 품목별(HS 코드 별)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어 품목별 기준이라고도 부른다.

수출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PSR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또한 양허세율과 마찬가지로 HS 코드를 통해 활용대상 협정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HS 코드를 정확히 알아야 대상물품의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품목분류가 FTA 활용의 첫 단추를 꿰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⑥

* 위 기사는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공식 발효된 후 올해로 13년차에 접어들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자유무역을 향한 디딤돌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칠레 FTA, 우리 통상 정책의 일대 전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 관세인하를 통해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고, 1995년에는 자유무역에 대한 더욱 강화된 의지의 표현으로 WTO(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EU(유럽연합)의 심화·확대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를 촉발하였고, 이에 다수의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FTA를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재 세계는 자유무역을 위한 다자협상(WTO 도하개발 아젠다)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병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흐름은 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어 ASEAN 국가들이 AFTA를 출범시켰고 전통적으로 지역협정과 거리를 두어 온 일본과 중국까지도 아시아권 내외의 국가들과 FTA 체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어떠한 FTA도 체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칠레와의 FTA 추진은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는 1998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범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

안정적인 수출기반의 확보, 그리고 해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통상정책의 주요수단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그 첫 협상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간박했던 사상 첫 FTA 협상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칠레의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9월 협상의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1999년 12월에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2년 10월까지 총 6차례의 공식협상 및 별도협의를 가졌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일부 농산물 개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타결에 이르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에 대한 충격을 우려해 쌀을 비롯하여 사과, 배 등의 일부 농산물을 양허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칠레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농업 전 품목의 자유화를 요구하였다. 동시에 칠레는 맞대응으로 한국산 공산품 일부에 대해 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공산품 수출 증대가 목적인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다. 이로 인해 2000년 12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5차 협상이 연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은 고위급협의를 열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 8월에 5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 칠레는 기존 입장을 바꿔 사과, 배 등 과실류 일부를 예외품목으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칠레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탁기, 냉장고에 대해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고 다른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받아들였다. 협상은 2002년 10월에 종료되어 한·칠레 FTA가 타결되었다.

✦ 한·칠레 FTA 협상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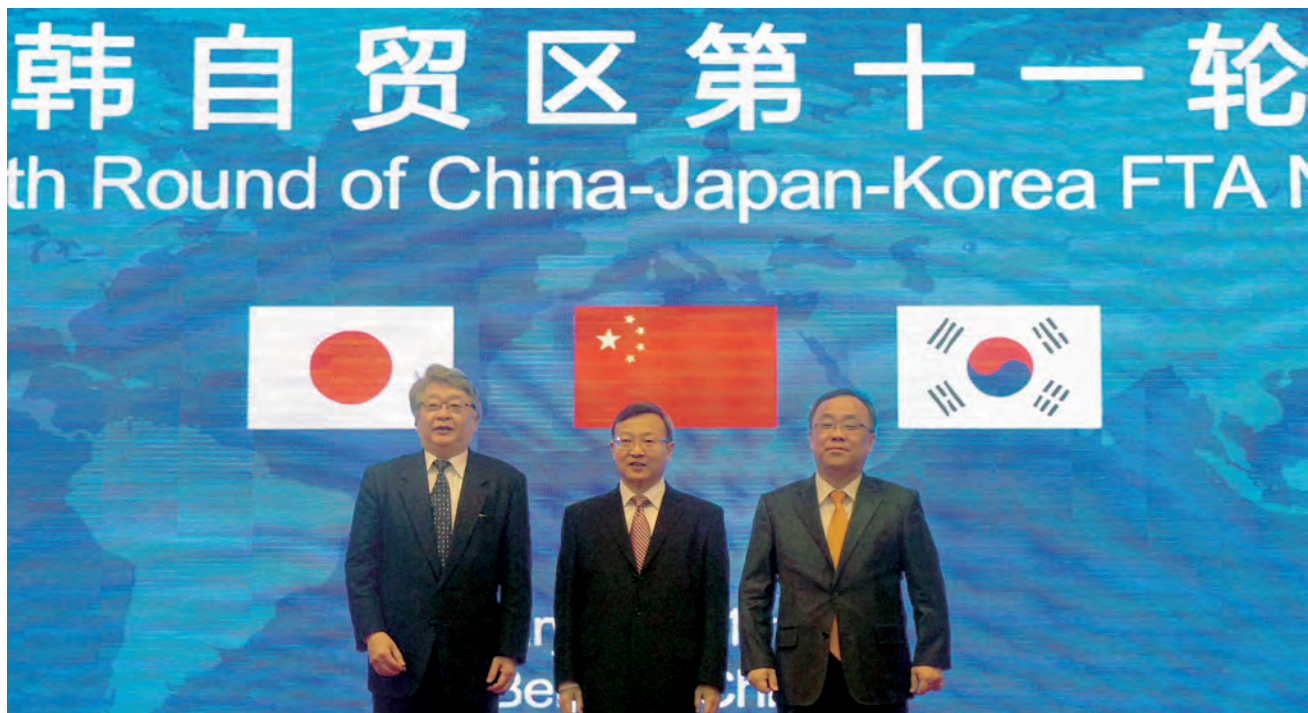
2004년 4월 1일부터 정식 발효한 한·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철폐, 비관세장벽 철폐, WTO 농업협정 관련 규정을 준용한 농산물 개방, 칠레 정부조달에 한국기업 참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의 내국민 대우 보장, 반덤핑관세 상호면제(이후 WTO 규정 준용으로 변경), 통관, 통신서비스, 경쟁정책, 분쟁해결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FTA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농축산물의 경우, 양국은 FTA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철폐계획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상대적으로 민감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추후 우리나라 FTA 추진의 벤치마크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여 무역 규모가 4배가량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FTA 발효 이후 관세가 낮아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핸드폰, 합성수지, 건설 중장비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였고, 칠레는 우리나라에 구리, 펄프, 돼지고기, 과일, 포도주 등 자원 및 농산물 수출을 늘렸다. 한·칠레 FTA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개방이 균형 잡힌 상호 호혜적인 FTA로서, 우리나라가 중남미 시장에 깊숙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한 FTA이고 주요 지역별 거점국가와 추가적인 FTA를 추진하는 벤치마크가 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높였고 ASEAN, EFTA, 싱가포르,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3년차 FTA, 또 다른 변화 맞이할 차례

지난 2016년 11월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APEC 각료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발효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변화한 양국의 교역 환경과 주요 수출 품목들의 사정을 반영해 무역교역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한 취지이다. 즉, 칠레가 2006년 중국, 2007년 일본 등 경쟁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하면서 대외경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가 가졌던 시장장점 효과가 대부분 상쇄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도 최신 글로벌 규범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그간 한·칠레 FTA의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선협상을 통해 칠레에 그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냉장고, 세탁기 등 공산품시장의 추가 개방과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칠레는 우리에게 농산품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경제·문화 등에 대한 협력 조항을 신설해 자원·에너지·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㉞

FTA
NEWS한중일 FTA 11차 공식협상 개최
금융·통신 분야 등에서 본격적인 협상 진행

한중일 3국 장관들은 지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후 11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을 개최했다.

제11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우리는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중국은 왕셔우원(王受文)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慶一)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협상은 작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수석대표 공식협상(2016.6.27~28) 이후 7개월 만에 개최된 3국간 고위급 협상으로 지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2016.10.29)에 이어 한중일 3국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상 가속화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전향 국면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을 중심으로 3국간 진전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상

품 분야에서는 협상 진전을 위해 각국 입장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등 협정 범위에 공식적으로 추가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추후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주요규범 분야를 포함, 협상 전반에 걸쳐 논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3국은 이번 협상 논의를 토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상에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는 우리의 교역·투자 확대와 동북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한중일자유무역협정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이바지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분야별 이행위원회 통해 중국과 통상관계 점검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지난 1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는 총괄 협의채널로서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양국 간 분야별 통상현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 중국 측은 홍샤오둥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1월 9일 관세위원회 및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11일 비관세조치작업반, 12일에는 상품위원회와 서비스·투자·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등 3일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되었다. 분야별 이행위원회는 공동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분야별 이행현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 3년차가 된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서 우리 업계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 FTA 공동위 앞두고 업종별 통상현안 점검 대미 통상현안 점검,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7일 '2017년 제1차 통상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17.1.12, 서울)에 앞서 주요 업종별 대미 통상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우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상생의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현안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의 핵심 협의채널인 '공동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철강, 자동차, 전자·정보, 석유화학 등 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업계 건의를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철강 업계는 최근 강화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¹ 규정' 등 미국 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이 외에도 각 업계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KOTRA는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집중해 업계의 새로운 대미 협력기회 발굴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으며, 대한상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5주년('17. 3)' 등에 맞춘 대미 현장지원 활동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무역왕 비밀코드:1380
제작 기념 선물 이벤트

당첨자 안내

영화예매권(10명)

조형심 5912
김혜인 0280
송용식 3806
유혜경 1396
박순애 3596
이혜진 7080
홍주희 6663
서행식 9989
박지연 4642
김진웅 8180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30명)

이광훈 1830	이형철 7436
심후남 3262	유성호 0791
전인직 1170	홍석화 0665
한석문 2464	이혜림 8632
진혜미 2611	이춘성 3819
유종현 3230	하빛나 0532
곽지혜 2275	이두한 4670
강상철 3725	볼곰양 4196
백해랑 5380	임명환 5640
김희용 1249	유현정 9497
송재하 7151	홍연정 3191
박찬술 4134	서정세 4313
정명진 2555	유은영 2430
전주현 6420	유토미 8311
구근형 0781	노위시 8663

¹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해 최근 한국산 도금철강판('16.5), 방연강판(7), 열연강판(8)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를 판정

이달의 FTA 행사 및 해외 전시 정보를 소개합니다.



미국 내쉬빌 여성 박람회

일시 : 2017. 03. 30 ~ 2017. 04. 02

개최 국가 : 미국(내쉬빌)

전시장 : Music City Center

전시분야 : 여성용품, 화장품, 네일, 보석류, 주방용품, 건강음식 등

홈페이지 : www.southernshows.com

이메일 : SAbernethy@SouthernShows.com



중국 남부 국제 치과 전시회

일시 : 2017. 03. 02 ~ 2017. 03. 05

장소 : 중국(광저우)

주관기관 : KOTRA

전시 : 품목 의료, 의료용품

지원내역 : 참가비 국고지원: 아래 ①+②항목 총 합계의 최대 50%내 지원예정

- ① 부스임차료 ② 부스장치비 : 기본제공 범위 장치내역 - 조명, 기본벽체, 바닥카펫,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 ③ 운송비 : 한국관 공식 선정운송사를 통한 1부스당 1CBM한도 전시품 편도 (서울 → 전시장까지) 100%운송지원(해상운송 기준)
- ④ 기타홍보비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등 현지홍보비용

사업신청 및 안내 : <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
<http://www.gep.or.kr/frt/main/mainPage.do>



상해국제 호텔용품 전시회

일시 : 2017. 03. 30 ~ 2017. 04. 01

개최 국가 : 중국(상하이)

전시장 :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Shanghai)

전시분야 : 주방용품, 에어컨설비, 욕실용품, 객실용품, 보건기재, 식품음료, 등

홈페이지 : fxstation.co.sonhoo.com

이메일 : jojo.zhang@ubmsinoexpo.com



알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FTA〉가 2017년부터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이메일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서 kns@hankyung.com으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함께하는FTA〉를 보신 소감은?
- 〈함께하는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 〈함께하는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kns@hankyung.com)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360-4810



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가는 안전강국!

2017 국가안전대진단

2017년 2월 6일 ~ 3월 31일



진단
주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주체, 국민 등

진단
대상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등

진단
방법

안전점검,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 제언 등

수출이 궁금해?

1380

수출안내 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든,
FTA 활용부 수출 및 해외투자정보,
수출거래지원, 금융지원체계 구축등
수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